



남이섬에서 만나는 <청계천 헌책방>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청계천 헌책방은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40대 중반의 사람들과 호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오랜 고서적을 찾는 이들과 어린이도서를 싼 값에 구매하려는 알뜰한 엄마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한번쯤 둘러볼 만한 곳 2~3만 원대의 대학교재나 전문서적을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다. 3,000원이면 소설책 한 권을 구입할 수 있다. 잘 고르면 새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전문잡지, 비디오테이프, LP판까지 있다.

《2007 세계 책나라 축제》 한류무대 중심지, 책나라로 탈바꿈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주)남이섬 제공



〈세계 24개국 초등학교 교과서전과 북한 교과서 특별전〉

다른 언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국, 호주 등 24개 국의 어린이 교과서가 주행사장이 이벤트 홀에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북한 어린이교과서 특별전'과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어린이들이 배우는 '조선족 어린이 교과서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된 화폐, 우표 등이 함께 전시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다양한 문화체험 〈National Day〉

5월 5일 싱가포르의 날을 시작으로 12일 인도, 26일 세르비아, 6월 9일과 10일은 이탈리아주간, 6월 30일은 필리핀의 날로 지정, 책나라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78개 국가 중 6개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5월 5일 〈싱가포르의 날〉에는 싱가포르 리틀 인디아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해나페인팅' 이벤트와, 동화구연, 싱가포르 자유여행권인 경품으로 주어지는 '내가 꿈꾸는 싱가포르' 상상 그림그리기 콘테스트 등이 열렸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이탈리아주간'이다. 이탈리아의 '본템피사'에서 제작한 장난감 이코디언, 장난감 실로폰, 장난감 타악기, 간반악기로 연주하는 '색다른 연주그룹 〈Playtoy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로 다양한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한다.

남이섬이 변했다. 드라마 촬영지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 소개되면서 한류 붐에 힘입어 동남아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6년여. 아직 그 여세를 몰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섬은 단순 관광지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세계책나라축제' (NAMBOOK-007)는 남이섬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사로 꼽힌다. 전 세계 78개국이 참가하는 비상업적 순

수 어린이 독서문화축제로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책나라축제'는 남이섬의 자연 환경과 관광지로의 대내외적인 관심을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하는 국민 문화행사로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독서운동 단체, 유네스코, 유니세프, YMCA, YWCA, 환경연합 등 국제기구 및 시민문화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시, 공연, 체험을 제공하고 세계책나라축제실행위원회(위원장 강우현)는 이번 행사 동안의 남이섬 장소와 시설, 예산을 지원한다. ☞